

ECONOMICS NEWSLETTER 제 31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김재영 / 편집인 : 조성진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4년 8월

The 22st SJE-KERI International Symposium

The 22nd SJE-KERI
International Symposium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의 이슈 Recent Issues in Macroeconomics: Post Financial Crisis

10:20 AM – 16:45 PM, July 2nd (Wed.) | 09:30 AM – 13:30 PM, July 3rd (Thur.) | Seoul National University, Bldg. 16 Room # 312
Organizer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SNU Institute for Research in Finance and Economics

2014년 7월 2일과 3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경제연구소, 서울대 경제연구소,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제 22회 SJE-KERI International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Recent Issues in Macroeconomics: Post Financial Crisis'라는 주제로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학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본 학술행사에서는 특별히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준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본 행사의 첫 번째 발표는 콜롬비아대(Columbia University)의 우라이브 마틴(Urbe Martin) 교수가 "A model of the Twin Ds: Optimal Default and Devaluation"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소영 교수가 "Country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Government consumption shocks on current account and real exchange"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점심식사 이후 케이오대(Keio University)의 테라미시 유키(Teranishi Yuki) 교수는 "Optimal Macroprudential Policy for Korean Economy"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심일혁 국제결제은행(BIS) 이코노미스트는 "Correlations Across Asia-Pacific Bond Markets and Impact of Capital Flow Measures"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다. 그 이후 경희대 정용승 교수가 "Macroprudential and Monetary Policies: Implications for House Prices and Household Debt"에 대한 연구를 설명했고, 뒤이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재영 교수가 "Risk Spillover Effects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Evidence from the Recent Financial Crisis"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윤택 교수의 "Inflation and Exchange-Rate Crises" 연구 발표로 행사 첫 날이 끝났다.

다음 날인 3일 오전에 재개된 행사에서 콜롬비아대(Columbia University)의 스미트그로흐 스테파니(Schmitt-Grohe, Stephanie) 교수가 "The Making Of A Great Contraction With A Liquidity Trap and A Jobless Recovery"라는 연구를 발표했고, 뒤이어 교토대(Kyoto University)의 트수루가 타카유키(Tsuruga, Takayuki) 교수가 "Prudential Capital Controls or Bailouts? The Impact of Different Collateral Constraint Assumptions" 연구를 설명했다. 본 학술행사는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쿠로즈미 타쿠시(Kurozumi, Takushi) 박사가 "Post-Crisis Slow Recovery and Monetary Policy"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SSK International Workshop on Asia and World Trade



2014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SSK 국제경제질서팀과 위험관리프로그램 주최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한국, 스코틀랜드, 미국, 일본 등 세계 8개 대학에서 11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아시아와 세계 무역”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를 발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우선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됐다. 첫 번째 발표는 Vanderbilt 대

학의 Eric Bond 교수가 “Tariff Overhang Theory and Evidence”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이어서 Strathclyde Business School의 Ian Wooton 교수가 “FDI, Trade Costs and Regional Asymmetries”라는 연구를 설명했다. 뒤이어 Hitotsubashi 대학의 Jota Ishikawa 교수가 “Trade Liberalization and After market Services for Imports”에 대해서 발표했고, 참여자들 간 간단한 토론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그 이후 서울대학교 박지형 교수의 “Pre-trial Settlement with Imperfect Private Signals” 발표를 마지막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Workshop on Distributive Justice, Institutions, and Behavior



2014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 일 간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 SSK 사업단과 국제경제질서팀 SSK 사업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 주관으로 “DISTRIBUTIVE JUSTICE, INSTITUTIONS, AND BEHAVIOR”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됐다. 첫 번째 순서는 “Mechanism Design Theory”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영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Singapore 경영 대학의 Shurojit Chatterji 교수가 “Domains that admit strategy-proof compromises: a characterization of single-peakedness”라는 주제로 첫 번째로 발표하였고, 이어 Manchester 대학의 조원기 교수가 “Impossibility results for parametrized notions of efficiency and strategy-proofness in exchange economies”라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순서의 주제는 “Political Economy”로 고려대 이우진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Henan 대학교의 Baomin Dong 교수가 “Resale Bargaining, Upfront Payments, and the Countervailing Power Hypothesis.”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했

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지형 교수가 “Rules of Origin Requirements in Korea-US FTA: Testing a Modified Political Economy Model with a New Measure of Rules of Origin Requirements”라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순서는 “Fair and Optimal Institution Design”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진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Optimality of non-competitive allocations”라는 연구를 Glasgow 대학의 Andriy Zapechelnuk 교수가 발표했고, 뒤이어 Shanghai 대학의 Kang Rong 교수의 “Fair Arbitration when Players' Preferences are Unknown”연구 발표로 행사 첫날이 끝이 났다. 다음날 오전에 진행된 마지막 순서는 “Game Theory and Applications”라는 주제로 Shurojit Chatterji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는 Waseda 대학의 Yuki Funaki 교수가 “The Shapley value, a new basis, an inverse problem and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solutions”라는 연구를,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의 유승한 교수가 “Job Market Signaling with Human Capital Investment”라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의 “Choosing tax schemes under a veil of ignorance”연구 소개로 워크숍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다.

교수 신간 안내

잘! 생겼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우리 현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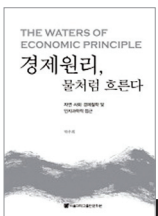


이영훈 지음

가파랑 (2014년 3월 14일 출간)

이 책은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펴낸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역사》를 저본으로 삼아 청소년용으로 다듬은 것으로 우익성향, 좌편향, 역사 왜곡 등과 같은 어른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역사책이 아니라 ‘바른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 그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상처, 그리고 기적적이라고 찬사 받을 만큼 현명하고 빠르게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사조자료와 함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원리, 물처럼 흐른다 -자연사회 경제철학 및 인지과학적 접근



박우희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년 3월 25일)

저자는 새롭지만 흔하지 않은, 흔하지만 새로운 경제원리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원리는 현실 속에서 찾는다. 경제학을 통해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경제원리를 찾아내어 살아 있는 정책을 입안, 경제현실을 더 낫게 만든다. 즉, 경제현실에서 원리의 참모습을 찾아내고 중요변수를 비르게 밝혀냄으로써 이론과

정책을 수립, 현실을 해석, 이해, 설명,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과학적 방법만을 다룬 일반적인 경제원리가 아니다. 새 경제원리를 찾기 위해 저자는 인성, 사회, 정치, 자연, 종교 원리와 함께 어느 책보다 폭넓고 깊게 경제원리의 뿌리를 철학 및 인지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함께 멀리 가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실천철학



정운찬 지음

동반성장연구소 (2014년 7월 10일)

2세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 동화를 피할 길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동반성장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다함께 살자는 사회를 구현할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부터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안,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동반성장 정책, 태행적 갑을문화의 개선방안, 교육에서의 동반성장, 남북한 동반성장, 지역 간 동반성장, 대형병원과 중소형병원의 동반성장, 농업 분야에서의 동반성장, 소상공인과 동반성장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야를 확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동반성장을 여러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자인 만큼 학생으로부터 일반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동반성장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교수수상 및 동정

김병연 교수, 미국비교경제학회 운영위원



우리 학부의 김병연 교수가 2014년 초에 이루어진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미국비교경제학회(Associations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ACES)의 운영위원(Board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으로 선출되었다. ACES의 운영위원은 임기 2년의 총 6인으로 구성되어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학회지(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의 편집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김병연 교수는 전 세계의 비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2015년 6월, 로마에서 주최하는 "Fir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의 운영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재영 교수, 제44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우리 학부 김재영 교수가 '제44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 44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이다. 김 교수는 2014년 1월 계량경제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etrics'에 'An alternative quasi likelihood approach, Bayesian analysis and data-based inference for model specification'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부정확성 하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지형 교수, 사회대 기획부학장 겸무



우리 학부의 박지형 교수가 사회대 기획부학장을 겸무한다. 박지형 교수는 2014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기획부학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근 교수, 쉘페터상 수상 및 쉘페터학회 차기 회장 선출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교수 (경제연구소장)는 7월 27-30일 동안 독일 Jena에서 열린 국제 쉘페터 학회 총회에서 단독 영문저서인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 income trap (Cambridge Univ Press 2013)'(한글 제목: 경제추격에 대한 쉘페터학파적 분석)으로 쉘페터 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최근 2년간 나온 연구업적 중 우수한 저작물에서 수여되는 것으로, 선진국 출신이 아닌 학자가 이상을 받는 것은 이근 교수가 최초이다. 또한 이근교수는 이 국제 쉘페터학회의 차기 회장으로도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6년-18년이며, 회장으로서 2018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준구 교수, 제33회 스승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상



우리 학부 이준구 교수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3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준구 교수는 그 동안 교육과 연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원으로서 최고의 훈장으로 인정받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이지순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선출

우리 학부 이지순 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2014년 7월 11일(금) 총회를 개최하여 경제학 분야에 이지순 교수를 신입회원으로 선출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은 올해 신입회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 되고,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평생동안 회원으로 그 지위를 갖게 되며, 국가로부터 학술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지홍 교수, 김태성 학술상 수상



우리 학부의 이지홍 교수는 2014년 2월 11일 열린 한국계량경제학회에서 김태성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태성 학술상은 40세 이하 경제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성취가 탁월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전영섭 교수, (사)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취임



우리 학부 전영섭 교수가 (사)한국자원경제학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1987년 6월에 설립된 한국자원경제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에너지경제학회(IAEE)의 한국지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 및 환경 분야의 연구논문들을 발간하는 학술지인 자원·환경경제연구를 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연구논문들을 발간하는 학술지인 에너지경제연구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자원경제 분야의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정운찬 명예교수 활동 소식



우리 학부의 정운찬 명예교수는 2014년 7월 17, 18 양일에 걸쳐 동경대학교 총장 자문위원으로 제11차 자문위원회회의에 참석하여, 해마다 총장이 행한 연설 '21세기의 고등교육'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3~5 3일간 재미한국학교협회의 정기총회에 초청받고, '재미한인학교의 사명과 동포사회의 미래'에 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

황윤재 교수, 2014년 창의선도연구자로 선정



우리 학부의 황윤재 교수가 2014년 서울대 창의선도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창의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교수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노벨상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 수상자 배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윤재 교수, SETA Scientific Committee 의장으로 선출



우리 학부의 황윤재 교수가 최근 SETA Scientific Committee의 의장(chair)으로 선출되었다. SETA는 계량경제학분야에서 주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 10번째 회의가 대만에서 개최된 바 있다. SETA 의장은 학술대회 개최장소 결정을 주도하고 매년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계량경제학자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 연구의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경제학부장 김재영 교수 인사말



김재영 교수

경제학부 동문 여러분,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번 7월 중순부터 새로 학부장의 임무를 맡게 된 김재영교수입니다. 학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68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학부는 경제학 분야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우리 학부의 졸업생들이 국가 사회의栋梁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자부합니다.

경제학부에는 2014년 8월 현재, 38분의 교수님과 10인의 행정직원, 1000여명의 학생(학부 772명, 대학원 27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1개 학부의 수준을 넘어서 1개 단과대학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 각자는 우리 경제학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충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근자에 이르러 주위의 많은 분들로부터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둘러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요. 경제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기업들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개인들은 예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은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왜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행복도는 떨어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지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된 경제사조를 일컫는 말인데,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유시장의 기능이 절대 중시되어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상품과 경제행위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까지는 유례 없는 호황과 풍요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었지만, 개인 간·국가 간 불균형과 불평등의 심화, 투기성 금융자본의 확대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급증, 버블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지요. 결국,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으며 퇴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자본주의 4.0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이는 시장기능과 정부역할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며 시장의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장점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시장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는 틀을 갖추자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찌 보면, 이는 아담스미스가 주창한 "개인의 사적인 이윤추구가 사회적 선(공익, 국부의 증대)이 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명제가 현실에서 꽃필 수 있기 위한 필수적 상황조건을 다른 시각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과 그 이후 논의된 자본주의 4.0 이외에도 사안별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해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제학도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새로운 기회이며, 향후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학도들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경제학 분야의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소임이 중함을 더욱 절감합니다. 우리 경제학부의 발전이 곧 국가 사회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학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그 역할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저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우리 경제학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첫째, 국제학계에서 주목할 창의적인 선도연구를 수행하는 경제학부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국내의 경제학계는 외국의 학문을 수입하여 연구하거나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외국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경제문제의 복합성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국제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연구역량을 키워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부의 교수님들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제학계를 이끌 선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몇몇 분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학생-업무지원인력으로 이루어진 교육-연구팀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구성원들이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함께 하는 시간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경제학부의 모습입니다. 학생자치기구를 통한 다양한 공동참여 이벤트,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의 해피아우어,

타대학/학과와의 체육대회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의 기회와 교수-학생들 간에 편안한 소통의 기회가 더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연구교육의 성과와 지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경제학부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간단없이 학부 내외적으로 논의되어온 문제이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사회적 경제 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자에 발생한 경제적 위기상황과 연관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로 실증분석의 수행과 이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학사와 석사과정 동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제 인생에 큰 방향을 제시해주신 은사님들과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친구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이분들에게 받은 것이 많은 행운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학문과 인생 전반에 큰 가르침을 주신 경제학계의 큰 스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부와 경제학을 통하여 제 인생에 중요한 분들을 만나고 큰 가르침을 받았기에 저는 경제학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학의 중요성과 우리 경제학부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전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삼도수군통제사의 소임을 다시 맡으며 자신의 지기인 류성룡에게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서양의 어느 현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둡고 힘든 상황이 우리 주위를 덮고 있어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경제학자 마샬의 표현을 빌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가진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젊은 인재들을 국가와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할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경제학부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오며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동문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저희 학부에서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부의 발전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모쪼록,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인사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졸업 (1983. 2)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졸업 (1985. 2)
- 미네소타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4. 2)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2. 8 - 현재)

신임 홍재화 교수 인사말



홍재화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3월부터 경제학부에 부임하게 된 홍재화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후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로체스터에서는 학부 거시경제학과 박사과정 거시, 고급거시를 강의하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14년 만에 모교로 돌아와서 돌이켜보니, 오래 전 유학을 떠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학부, 대학원 시절 경제학에 대한 열정을 가르쳐주시고, 유학의 길로 이끌어주신 여러 은사님들, 박사과정 동안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장학재단, 연구하는 방법 뿐 아니라 학자로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쳐주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엔 동료 연구자로 동등하게 인정 해주시면서 기뻐하셨던 지도교수님들, 타지 생활 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선·후배 동료 친구

들, 그리고 언제나 소중한 가족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박사과정과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이제는 오래 전에 유학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은사님, 선배님들을 모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겨우 첫 학기 강의를 마쳤지만 이미 경제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생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비동질적 경제주체 (heterogeneous agents)의 경제행위를 거시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 내 집계변수들 (aggregate variables, 예를 들면, 고용, 총생산, 물가 등)의 결정과 변화를 공부하여 왔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의사결정들이 모두 모여서 집계변수에 반영되는 영향과 그 후속효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별 경제주체들은 성별, 나이, 가족구성, 교육수준,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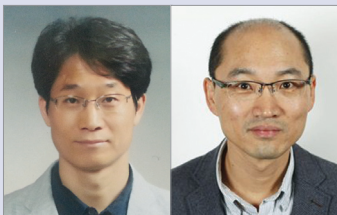
능력, 소득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일 수 있으며, 특정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경제정책의 거시경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 내 서로 다른 집단의 각기 다른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개별 반응들을 모아서 경제전체에 미치는 총효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일인가구의 증가, 한 부모 가정 등의 사회현상변화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 재정정책의 세대간, 계층간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전체의 후생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을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학 발전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타지생활을 정리하고 모교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경제학 학사, 1997, 서울대학교
- 경제학 석사, 2000, 서울대학교
- 경제학 박사, 2006, 펜실베이니아대학교
- 경제학과 조교수, 2006 - 2012, 로체스터대학교
- 경제학과 부교수, 2012 - 2014, 로체스터대학교
- 경제학부 부교수, 2014 -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 신규 임용



(New York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분야

2014년 9월 최승주 교수(사진 왼쪽)와 서명환 교수(사진 오른쪽)가 부교수와 조교수로 각각 임용될 예정이다. 최승주 교수는 본교 경제학부 석사 졸업 이후 2006년 미국 뉴욕대

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학이다. 서명환 교수는 본교 경제학부 석사 졸업 이후 2004년 미국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이다. 부임 이후 첫 학기인 2014년 가을학기에 최승주 교수는 대학원에서 '미시경제학연구'를, 서명환 교수도 대학원에서 '경제통계학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남의 돈으로 좋은 일 하기



서주현
(안전행정부 과장)

모교 교수님으로부터 기고 요청을 받고,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떠난 지 20년 가까이 지났고, 경제 분야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연락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소식지에 동문기기로 실린 글들을 보니, 주로 저보다 10년에서 20년 이상 선배들이 쓰셨더군요. 학술적인 글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냥 재학생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공무원입니다. 주로 인사행정, 민원제도, 행정혁신에 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부혁신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제가 느낀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후배들이나, 공직의 특징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던 때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한 두 시간은 신문을 읽었는데 특히 경제면 기사들이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사회 선생님께서 진로와 진학 문제를 상의하러 갔습니다. 경제부처 이름 몇 개를 들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우 그 정도만 알고서 경제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학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만 해도 경제학, 경영학이 어떻게 다른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경제학이 훨씬 더 재미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 초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에게는 계속 물었습니다. 제 첫 번째 답은 “남의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일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려면, 많은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방안, 중소기업에 위한 방안, 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그렇습니다. 큰 부자라면 자기 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만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에는 그걸 해결할 힘도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이 하는 일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큼니다.

공무원이 되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보건복지부나 중소기업청, 환경부에서 일하며 그런 방안을 알찬 계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토의하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결정권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국세청이 거둔 세금의 일부를 배정받아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전담할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인원을 더 배정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그 일이 지속되려면,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여건에서 돈과 사람을 모으는지, 그리고 나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 받아서 얼마나 힘겨운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남의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계획이 좋으면 돈과 사람과 제도가 따라 붙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멋진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무척 매력적입니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의하고 설득하고 협의하는 각 단계마다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계획이 뜻밖의 상황을 만나서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알찬 계획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언젠가 적절한 기회를 만나서 실행에 옮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기업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경제 문제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의 관점은 정부의 관점입니다. 또한 경제학을 통해 배우는 사회적 비용이나 외부효과, 공공재 등과 같은 많은 개념들

은 그 어느 직업보다도 공무원에게 유용합니다.

공무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거절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직업보다도 그래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다가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무원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거절하지 않고 소극적으로라도 동조하다가가는 직장을 잃거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뉴스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 중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 그 요구에 쉽게 동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직에 몸담고 있던 지난 15년 간만 돌이켜봐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튼금없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서른 아홉에 결혼하고, 마흔 살과 마흔 두 살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휴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육아휴직은 아직 흔하지 않아서, 저도 신청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다행히 조직 내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좋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들 합니다.

이처럼 공직사회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관심 있는 후배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seojoohyun@gmail.com)

〈학력 및 주요 경력〉

- 1995년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졸업
- 1997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
- 1997년 제4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2005년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
-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관리담당관
- 2012년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장
- 2013년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장

스쿼시 이야기



이준영 (석사과정)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 관리를 위해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쯤 갖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나 수영, 혹은 테니스와 같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운동들을 즐기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스쿼시를 예전부터 쳐왔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물론 스쿼시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쿼시라는 운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쿼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 역시 스쿼시에 대해 “테니스와 비슷하지만,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하는 운동”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스쿼시라는 운동에 대해 잠시 소개하는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제가 스쿼시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는, “스쿼시? 그거 혼자서 벽보고 공치는 운동 아니야?”와 같이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연습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스쿼시 역시 테니스나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테니스와 달리 네트가 없고, 양 쪽이 서로 마주보며 경기하는 대신에 모두 한 쪽 방향으로 벽을 보면서 경기를 하지만, 자체적인 서비스의 규칙이 있고, IN과 OUT의 경계선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1대 1로 경기하는 단식뿐만 아니라 2대 2로 경기하는 복식 역시 존재합니다.

스쿼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는 또 다른 생각은 ‘상당히 격렬한 운동’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1대 1로 스쿼시 강습을 받거나, 단식 게임을 하다보면, 한 번에 쉬지 않고 20분 이상 계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쿼시의 경우 경기를 하는 양 쪽이 같은 공간에서 뛰게 되는 특성 상, 공을 빠르게 쫓아가고 또 뛰는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거나 백스텝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의 ‘셔틀 런’ 훈련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깅이나 수영에 비해 한 번에 쉬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쿼시는 얼핏 보면 테니스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라켓의 경우 일반적인 테니스 라켓은 무게가 대략 250~300그램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쿼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무게가 120~140그램으로 상당히 가볍고, 라켓의 형태도 테니스 라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이 좁습니다. 실제로 테니스의 경우 백핸드 기술에서 양손으로 라켓을 잡고 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쿼

시의 경우 포핸드와 백핸드 모두 한손만을 사용합니다.

또한 공 역시, 스쿼시 공이 테니스공에 비해 크기가 작고, 탄력 역시 낮아서 상대적으로 낮게 튀어 오릅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보면 차태현이 자기가 친 공에 자기가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재미를 위해 스쿼시 공보다 크기도 크고 탄력도 훨씬 큰 라켓볼 공을 사용하여 연출한 장면으로, 스쿼시 공으로는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스쿼시와 테니스의 공과 라켓의 차이는 라켓으로 공을 치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테니스가 허리 정도 높이에서 강한 힘으로 공을 ‘밀어서 치는’ 느낌이 강하다면, 스쿼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무릎 정도 높이에서 라켓의 각도를 오픈하여 공을 ‘떠워서 치는’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로 학부 시절 테니스 교양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스쿼시를 치던 자세로 테니스 공을 칠 때마다 테니스공이 높게 떠서 코트 밖으로 넘어가버리는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스쿼시 치는 장면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스쿼시 대결을 펼치면서 자신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서 스매싱 하듯이 공을 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만큼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라켓이나 공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스쿼시와 테니스의 가장 큰 차이는 코트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니스 코트가 평평한 땅 위에 네트가 세워져있는 형태인데 비해, 스쿼시 코트는 직육면체 모양의 경기장으로 경기장의 벽과 천정 역시 코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테니스 코트의 규격이 경기장의 면적과 네트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비해, 스쿼시 코트 규격에서는 바닥의 면적뿐만 아니라 천정의 높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스쿼시 규격 코트의 천정 높이는 5.64m인데, 건물 설계 때부터 스쿼시 코트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 정도 높이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녀본 스쿼시장의 경우, 천정의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세미 코트’들의 경우 경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제약이 상당히 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쿼시의 경우 직육면체의 모양의 실내 코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라켓 운동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스쿼시의 경우 바닥과 더불어, 앞쪽 벽과 뒤쪽 벽도 코트를 이루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벽을 이용한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쿼시 경기에서 기본적인 랠리 형태는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공이 옆 벽에 거의 붙어서 평행하게 직진하도록 치는 것입니다. 특히 공이 옆 벽에 붙을수록 상대방이 받아치기 어렵고, 또한 공이 뒤로 갈수록 뒤쪽 벽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스윙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스쿼시의 경우 최대한 공을 벽에 붙이거나 뒤쪽으로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쿼시 경기의 경우 코트 안에서 각자의 영역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양 쪽의 선수들이 코트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치기 위해 뛰어가는 과정 중에서 상대방의 존재로 인하여 뛰어야 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서로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경기에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로 인하여 공을 치는 것에 방해를 받았을 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렛(let)’이라고 하여, 점수 득실 없이 해당 랠리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방해를 한 선수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스트로크(stroke)’라고 하여 방해를 한 선수가 점수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스쿼시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단면,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신체적인 조건보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또 그만큼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쿼시는 상대방이 치는 공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고, 뛰는 방향을 자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격렬한 운동입니다. 물론 키가 크고 다리가 좀 더 길면, 다른 사람이 세 걸음 뛰어야 될 때, 두 걸음만 뛰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신체 조건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쿼시와 같이 아주 격렬한 운동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선수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주어진 신체적인 조건보다는 끊임없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을 쫓아가는 ‘근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쿼시는 강한 힘으로 빠르게 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받아치기 어려운 지점에서 공을 정확하게 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라켓 운동들과 달리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고 빠르게 공격한다는 것은 대개 자신이 그 다음에 받아쳐야 될 공도 빠르게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신이 공을 강하게 치더라도 방향이 부정확하여 상대방에게 공격의 기회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만큼 그 다음의 자신의 방어 역시 어려워지는 것이 스쿼시의 특징입니다. 결국 스쿼시에서는 ‘강하게’ 치는 것보다 ‘정확하게’ 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공을 정확하게 치는 것은 주어진 신체적인 조건보다는 제가 연습하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스쿼시라는 운동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쿼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또 저의 부족한 글을 읽고 스쿼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분들로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쿼시라는 운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넓힐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편의 영화에서 얻은 교훈

「엣지 오브 투모로우(Edge of Tomorrow)」와 「어바웃 타임(About Time)」을 보고 나서



장호준 (학부 3학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다.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하다가,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블록버스터 「엣지 오브 투모로우(Edge of Tomorrow)」를 보았다. 영웅이 등장하는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그러하듯, 역경 끝에 주인공의 승리로 귀결되고, 약간의 로맨스가 가미된 영화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기대였다. 예상은 맞았다. 그런데, 신선한 재미와 생각할 만한 점도 함께 남겨주는 영화였다.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다. 외계인에 맞서 싸우는 가까운 미래에, 빌 케이지(톰 크루즈 분)는 외계인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는 죽는 순간 외계인과의 접촉으로 죽음을 맞으면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타임 루프에 갇히게 된다. 그는 여주인공 리타 브리타스키(에밀리 블런트 분)와 함께 이 능력에 기반하여 반복적인 죽음이라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 외계인의 근원인 '오메가'를 물리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황당함을 풀어내는 톰 크루즈의 능청 연기가 너무나 빛난 영화였다. 주변 관객들도 웃음보가 터져서 중간중간에는 코미디 장르 영화처럼 유쾌하게 보게 되었다.

영화를 보면서 자꾸만 떠오르는 말은 'Reset(원상태로 되돌리다)'이었다. 외계인을 물리칠 때까지 죽음을 통해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주된 줄거리였으니 말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필요할 때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공상이 떠올랐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처해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러한 능력을 갖는 것은 상상일 뿐이지만 참 즐거운 생각이다. 살아 보고 싶은 대로 여러 선택을 모두 해서 살아보다가, 충분히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삶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가능한 소망과 달리, 인생은 딱 한번만 흘러가는 것이니까 살 때 잘 살아야 한다. 다만 잘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달리, 세상이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갈 리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불확실한 결과와 달리 우리가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잘 먹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바람직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에 도달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역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주제로 하여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가 있다. 공상과학이 아닌 낭만적인 사랑을 다루는 「어바웃 타임(About Time)」이다. '러브 액츄얼리'의 감독 리처드 커티스가 메가폰을 잡았고, 주연 배우들의 호연과 탄탄한 스토리라인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작년에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이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보고 이전에 전해들은 바 있었던, 역시 시간에 관한 이 영화가 생각나 챙겨보게 되었다.

모태솔로인 주인공 팀(돔놀 글리슨 분)은 성인이 된 날 아침에 아버지로부터 놀랄만한 비밀을 엿듣게 된다. 가문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팀은 이 능력을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려고 결심한다. 그는 런던에서 메리(레이철 맥아담스 분)를 만나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녀를 쟁취하기 위해 이 능력을 심본 활용한다. 실수와 애석한 순간을 되돌려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데, 성공은 보장된 법. 둘은 사랑에 빠지고, 이내 결혼하게 된다.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팀은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슬픈 일들을 모두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주인공인 팀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교훈은 은막 위에서 참 아름답게 구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임을 두 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느껴볼 수 있었다.

여운이 남았다. 매사에 충실한 마음가짐을 충분히 갖고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다. 화창한 날씨와 오후의 여유를 충분히 즐겼는지, 친구들과 찾아간 맛집에서 향기로운 음식에 감동했는지 내일의 시험에 대해, '흥미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보자, 파이팅!'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는지 질문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충

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때로는 충분히 긍정할만한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나 얻고 싶은 대상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만족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살다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급함,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조금씩 가지게 되어, 지금의 모습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나 중·고등학교의 경쟁적인 입시 문화의 경험과 졸업 이후 시작될 사회생활의 압박은 현재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오히려 마음가짐의 태만함으로 보이게 할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란 더욱더 아리송하게 보여진다.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즐겨야 할지,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영화에서처럼 시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인생을 직접 겪어보고 체득한다면야 참 좋겠지만 영화는 영화일뿐,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보다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웃어른'들은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태도를 더 잘 체득하고 계실 것 같다. 그들이 지나는 길처럼, 오랜 시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보다 성숙해져야 인생의 흐름 전체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씩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한 현명함을 체득하는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름길 같은 건 잘 보이지 않는다. 차선으로서, '매 순간 충실한 삶'과 '마음의 행복'이라는 지향점이라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마음의 도를 깨우치지 못해도, 그것을 의식하며 살면 조금 더 그에 가까워질 것 같다.

지금은 시간이 많은 방학이다. 방학은 질편하게 쉬면서도 의미 있게 보내고, 여유를 가지면서도 미래를 생각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다. 자유를 만끽하고 즐기면서, 폭 쉬고 놀고만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미래를 위한 준비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이 뭔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는 명언이 있듯이, 하루하루는 소홀히 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시험공부처럼 피하고 싶은 일도 마음을 다잡아 보면 감사한 일상으로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도 휴식과 마찬가지로 밝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다면 인생이 조금 더 훨씬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보며, 글을 마친다.

법경제학연구회(LES) 소개

1. 동아리 소개

법경제학연구회(Law and Economics Society)는 법학과 경제학이 결합된 법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술동아리입니다. 법경제학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창안되어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경제학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상황과 그와 관련하여 산업조직론에서 다루어지는 경제학적 분석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는 법경제학에 대한 연구 및 정기적인 세미나와 함께 LESian간의 친목도모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경제학연구회(LES)는 2005년 8월에 창립되어 2005년 9월에 1기 회원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경제학을 공부하던 모임이 발전되어 저희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를 나가고 있으며, 이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여서 1년에 1회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 9월에 모집한 11기 LESian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 12기 회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법경제학연구회(LES)의 지도교수님은 경제학부 이상순 교수님입니다. 이상순 교수님께서 저희 LESian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주시며 동아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도교수님과 가까운 관계는 저희 LES가 자랑하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법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을 지도해주실 뿐 만 아니라, LESian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서 멘토로서의 역할도 해주십니다. 저희 역시 동아리 활동을 하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동아리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교수님께 찾아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담당 강의 : 산업조직론, 경제수학(학부)

산업조직론 연구, 산업조직론특수연구(대학원)

3. 동아리 활동

(1) 법경제학 세미나

저희 LES는 정기적으로 가지는 세미나를 통해 법경제학에서 다루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저희가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해외의 경쟁당국에서 다루는 경쟁법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저희는 세미나를 통해 각 사안과 관련된 논문과 심결례를 바탕으로 경쟁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과 이론들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저희 동아리가 이후 준비할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2)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참가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부한 법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는 이 대회에서 경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경제학 이슈를 직접 찾아서 발표하고 공정위의 심사와정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기존의 사례를 깊이 공부하고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쟁법 사례를 직접 탐색해봅니다. 탐색된 사례들 중 현실성과 시의성이 있는 이슈를 주제로 삼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법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또한 대회를 준비하며 오랜 시간 동안 LESian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어지는 시간은 LES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입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007년 이후로 저희가 동아리가 출전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 제
2007	(주) 허브 M&A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건
2008	(주) OKT 및 (주)CTF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2009	(주) 에이비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관한 건
2010	(주) 인투더파크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건
2011	(주) 헤리츠 금융지주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및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
2012	(주) 대한거래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3	주식회사 코리아앤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저희 LES 11기는 현재 "(주) 이바이코리아와

KC미니시스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의 주제로 13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처럼 이번 대회도 동아리원 모두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에서 LES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좋은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상 대상	우수상	우수상	대상	우수상	대상	장려상	
순위	1위	3위	2위	1위	2위	1위	5위

(3) 중국 칭화대 경제학부 EATH와 교류 세미나



LES의 중요한 동아리 활동 중 하나는 중국 칭화대 경제학부 EATH와 교류세미나입니다. 매해 겨울마다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여 칭화대의 EATH와 경제학 관련 이슈에 대하여 세미나를 하고 열린 토론을 진행합니다. 반면 여름에는 EATH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중국을 방문하여 17회 교류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는 EATH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세미나와 더불어 EATH와 함께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탐방을 하며 유대관계를 다집니다. LESian들은 중국 북경에서 머물면서 EATH의 회원들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칭화대 EATH 학생들도 서울에서 저희와 교류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는 칭화대와 단순한 학술교류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LES가 가지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행사

저희 LES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대회와 칭화대와의 학술교류 뿐만 아니라, 홈커밍데이·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부터 교수님과의 등산이나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소규모 행사까지 1년 동안 다양한 일정을 진행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정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LES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지난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 (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도 하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 사업단은 2014년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7회
- ▶ BK21플러스/ 김태성 기념 세미나 14회
- ▶ 경제사 워크숍 6회
- ▶ 장단기연수지원 단기 8회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유원석 (강남대학교 경제학과)

“Does Moment Timing Ability of the Issuer Exist? : Evidence in Structured Equity Products”

김민철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A Study on the Eliminating friction over the Greenhouse gas emission”

박준기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Foreign Capital Flows and Middle Income Country Trap”

홍지은 (경제학부 BK21플러스사업단)

“제도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education system)”

박준태 (BK21플러스사업단 석사과정)

“Firm size wage differentials across Korean industries”

김서영 (BK21플러스사업단 석사과정)

“Can Franchisor Efforts Discourage its Franchisees? Evidence from South Korea”

이예스터 (BK21플러스사업단)

“Son preference and Parental Investment in Girls: Evidence from South Korea”

BK21플러스사업단 김태성 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Michael Spasi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Capital Goods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Xiaoxia Shi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imple and Robust Model Test for Semi/Nonparametric Models”

조상욱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ccounting for Skill Premium Patterns during the EU Accession: Productivity or Trade?”

고영우 (한양대학교)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Christos Agiakloglou (the Economics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Piraeus)
“Issues on spurious behaviors”

Ryo Okui (Kyoto University)

“Dynamic Panel Data Analysis when the Dynamics are Heterogenous”

Krishnendu Dastida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Scoring auctions with non-quasilinear scoring rules”

Stephen Williamson (Washing University at St. Louis)

“Scarce Collateral, the Term Premium, and Quantitative Easing”

김규일 (성균관대학교)

“A Structural Analysis of Wholesale Used-Car Auctions: Nonparametric Estimation and Testing of Dealers Valuations with Unknown Number of Bidders”

Shiran Rachmilevitch (University of Haifa)

“The Nash solution is more utilitarian than egalitarian”

김현철 (Cornell University)

“Externalities and Complementarities of HIV/AIDS Prevention Programs”

Albert Guangzhou Hu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oes Government R&D Stimulate or Crowd Out Firm R&D Spending? Evidence from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안재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Estimating the Direct Impact of Bank Liquidity Shocks on the Real Economy: Evidence from Letter-of-Credit Import Transactions in Colombia”

Harrison Che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First-Price Auctions with Speculative Resale: Equilibrium and Optimal Revenue”

박예나 (University of Pennsylvania)

“Optimal Taxation in a Limited Commitment Economy”

경제사 워크숍

박이택 (고려대)

“Occupational Structure and Industrialization in Korea from 1910 to 1990”

나원준 (경북대)

“1990년대 초 스웨덴 금융위기와 신용 견해(credit view)”

김정호 (아주대)

“Evaluation Long-term Impacts of Sustained Mass Deworming: South Korea 1969-1995”

이현창 (고려대)

“조선시대 경지소유권의 성장: 『大典會通』 戶典 田宅條의 이해를 중심으로”

이정민 (서강대), 홍석철 (서강대)

“Accounting for Declining Birth Weight”

조영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을 활용한 연령집적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BK21플러스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논문발표지원)

김서영 (석사과정생) Hawaii/미국

Pacific Rim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Can Franchisor Efforts Be Disadvantageous to Franchisees? Evidence from South Korea”

이예스터(박사과정) Hawaii/미국

Pacific Rim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Son Preference and Parental Investment in Girls: The year of the White Horse Effect in South Korea”

홍지은(박사과정) Hawaii/미국

Pacific Rim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s and Education System”

박준기(박사과정) Hawaii/미국

Pacific Rim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Different Effects of Foreign Capital Flows and Repatriated Profit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박준태(석사과정) Hawaii/미국

Pacific Rim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Wage Structure in Korea with Monopsonistic View”

권구현(석사과정) Bristol/영국

Econometric Study Group
“The Identification Power of Smoothness Assumptions in Models with Counterfactual Outcomes”

이석준(석사과정) Yena/독일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Joseph A. Schumpeter Society
“Cycle time of Technology as a Criterion for Sectoral Specialization by Latecomer Economies to be Free from the Adding-up Problem: Same Expected Profits but higher Entry Probability of Short-Cycle Sectors in the Quality ladder Model”

정지영(신진연구인력) Venice/이태리

World Finance Conference
“How a Security Market Collapses?: Evidence in Japanese Floaters Market”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4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853명 중 208명(전액 장학금 123명), 대학원생 47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항상 장학금을 통해 39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상대동창회 졸업생 포상 및 장학금 전달

곽은지 학생이 성적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상대동창회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김동건 학생 외 38명이 상대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2014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4년 2월 27일 경제학부 학부장님이 프레스센터 대화홀에서 34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4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4년도 전기 졸업식이 2월 26일(수)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3명의 박사, 22명의 석사, 149명의 학사(최우등 48명, 우등 67명)를 배출하였다.

2014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4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

종 2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8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4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4년 7월 23일 ~ 2014년 7월 30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및 '경제수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조교 인사이동

민희연, 박다운, 한다연 조교가 퇴직하여 김혜진, 윤나영, 이해수 조교가 신규 임용되었고, 이지혜 조교가 보직변경을 하였다. 김혜진 조교는 졸업업무, 윤나영 조교는 교무업무, 이지혜 조교는 장학업무를, 이해수 조교는 학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제학부는 2014년 전공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부안내 오리엔테이션을 2월 24일에 개최하였다. 학부장 및 부학부장을 비롯한 경제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여 전공신입생들을 환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을 환영인사와 함께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 주었다. 행사 후 교수들과 학생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5월 8일부터 20일까지를 스승의 날 주간으로 잡고 스승의 날 행사 'Meet the professors'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부는 약 1000여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자유로운 사제간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담당교수들과 간담

회를 가지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4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Economics of Catch-up Studies in Technology and Development Economics
이철인	Analysis of Public Policies
Xifang Sun	Principles of Economics 1 Studies on the Chinese Economy
Oyvind Thomassen	Principles of Economics 2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Economy
Elias Sanidas	Micro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1
최연구	Advanced Economic Theory : Market Design
이승훈	The Korean Economy : History and Recent Changes

2014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4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1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23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1명의 중국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4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4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2014.2학기~2015.1학기에 파견 예정이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김대중(두산중공업 고문, 동문) 500만원(학술)
- 손병욱(푸르덴셜 생명보험 대표) 500만원(이석영장학기금)
- 상대 향상장학회 1,000만원(학술)
- 박성훈(CJ 부사장) 1,000만원(장학)
- 손병욱(푸르덴셜생명 사장) 500만원(장학)
- 봄음인베스트먼트 250만원(장학)
- 이필상(경제학부 초빙교수) 500만원(장학)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mail : kang97@snu.ac.kr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제 28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8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욱이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방향의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징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관,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제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 | |
|---|--|
| ① 모집인원 40 명 내외 | ⑤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
|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 ⑥ 모집안내 - 전화 : (02)880-5432 - Fax : (02)875-9867 |
|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 - email : asp@snu.ac.kr |
|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 Home Page : http://ier.snu.ac.kr |
| ③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 ④ 모집횟수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

ASP 27기 회원명단

- | | |
|-------------------------------|--------------------------------|
| 1. 곽세봉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14. 안병현 한국외환은행 전무 |
| 2. 곽홍주 (주)삼성생명보험 부사장 | 15. 안효진 (주)신한은행 부행장 |
| 3. 김경우 삼성자산운용 상무 | 16. 유경혜 화인화학 부사장 |
| 4. 김수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전략실장 | 17. 이국형 기획재정부 국장 |
| 5.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장 | 18. 이문중 금융감독원 실장 |
| 6. 김종호 SK하이닉스 상무 | 19. 이보경 삼성증권 상무 |
| 7. 김태형 경기도청 정보화기획관 | 20. 이석오 (주)GS글로벌 상무이사 |
| 8. 문기중 KT 본부장 | 21. 이종택 경향신문 논설위원 |
| 9. 민경원 NH농협은행 부행장 | 22. 임재욱 (사)금융결제원 부장 |
| 10. 박종진 (주)경승 대표이사 | 23. 정인상 (주)상보 상무이사 |
| 11. 백인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 24. 조성식 사보이홀딩스(주) 대표이사 |
| 12. 신화영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 25. 조인강 신용보증기금 감사 |
| 13. 안병준 한국콜마 전무이사 | 26. 최재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



〈ASP 27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이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에는 졸업생을 위한 학년별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mail: snu97113@snu.ac.kr 전화: 02-880-6359 홈페이지: <http://econ.snu.ac.kr>